

간절히

바
라
옵
건
대



탈
해
탈
곡

신고리 5·6호기 백지화를 위한
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핵탈송전탑 원정대

“ 우리 밀양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.
지금까지 지켜온 고향 산천을 자식들
한테 물려주고 싶은데, 곧 죽을 때가
되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.

정말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. 나라가
이렇게 가도 되겠나, 하는 두려움이
생겼습니다.

저 사람들은 후손은 하나도 생각하지
않고서 눈앞의 이익만 생각합니다.

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.

우리가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고
싶습니다.

”